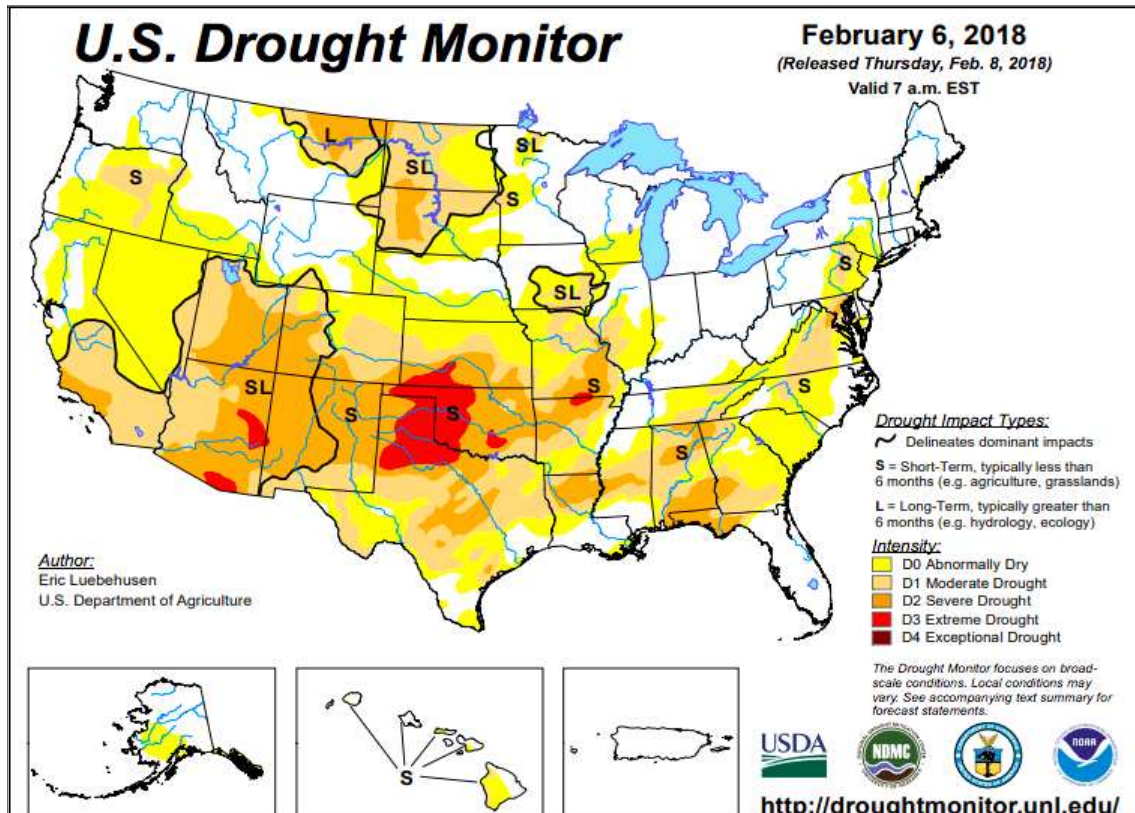


2월 1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7)

□ 미국 기후 현황(2/4~2/10)

남동부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농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이 지역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던 가뭄은 완전히 해소해 주었다. 북동부 일대에서도 지역에 따라 눈, 또는 비가 섞여 내렸다. 미시시피 델타와 애팔래치아 산맥 남부 일대에서는 4인치가 넘는 비가 내렸다. 북부 평원과 중서부에서는 눈이 내렸다. 몬태나와 오대호 인근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내렸다. 그 밖의 남부 지역과 서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서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20°F 이상 높았다. 남동부 저지대 일대에서도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정도 높았다. 반면, 북부 평원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0~20°F 이상 낮았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부터 로키산맥 북부와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2/5~2/11)

로키산맥 북부에서부터 오대호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면서 이 지역에서 오래 이어져 오던 가뭄을 해소해 주었다. 남동부 애팔래치아 산맥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다. 다코타, 몬태나 동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0°F 이상 낮은 추운 날씨를 보였다. 서부와 남부 일대에서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였다. 걸프만 연안 일대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5°F 정도 높았다.

□ 세계 기후 현황(2/4~2/10)

■ 유럽: 북부와 서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다.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2~4°C 정도 낮았다. 독일 등에서는 강수량 환산 2~15mm 내외의 눈이 내렸다. 스페인에서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로 기온이 평년보다 6°C 이상 낮은 날씨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동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렸다.

■ 구소련(서부): 2018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동아시아: 2018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 일대에서는 지난주까지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회복했다.

■ 아르헨티나: 중부의 중요 농업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3~4°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북부 일대에서도 대체적으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2월 8일 기준 옥수수 파종률은 98%를 기록했다.

■ 브라질: 대부분의 북부 농업 지역에서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Bahia 서부, Tocantins, Maranhao 등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남부, Minas Gerais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부 일대의 Mato Grosso, Tocantins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올랐다. Mato Grosso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월 9일 기준 대두의 수확률은 29%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p 낮은 수치이다.